

‘초고령사회’ 순천시, 어르신돌봄 시책 추진

80세 이상 1만3762명 18.7%
연 12만원 건강바우처 카드
AI 반력로봇 250명에 보급
치매노인 문제 선제적 대응

순천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AI를 도입한 돌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6월 말 기준 5만 1815명, 시 전체 인구 대비 18.7%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시는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80세 이상 13,762명에게 연 12만원의 건강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바우처는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순천형 어르신돌봄 추진으로 순천

형 AI반력로봇을 250명에게 보급해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 건강, 생활, 안전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당·동부·남부 3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어학, 정보화, 건강관리, 전통문화, 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건강 아버지 요리 교실’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는 서면 선평리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타운은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노인 문제에



순천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좋은 건강 아버지 요리 교실. 순천시 제공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

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4 세계유산축전’ 스탬프 투어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의 홍보와 함께 순천의 세계유산과 지역 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스탬프 투어를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한다.

스탬프 투어 장소는 세계유산인 선암사, 순천갯벌(순천만습지)과 지역유산인 송광사, 낙안읍성 4개소이다.

우리 유산을 둘러보고 각 장소별 관광 안내소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스탬프에 새긴 각 유산의 그림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투어에 재미를 더한다.

투어 완료자에게는 순천역 관광안내소와 세계유산축전의 거점 공간인 오전그린광장 홍보센터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scwhf.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축전 사무국(061-753-2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위생지도·점검 홍보활동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대상

보성군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울포솔밭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위생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울포해수욕장 및 제암산자연휴양림 주변 음식점과 배달음식점 중 접근성이 쉬운 분식점과 중국음식점을 포함한 90여 개소이다.

이날 주요 활동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장 청결 관리 준수사항 여부 △시설기준 관리 △영업주,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지도 △식중독 예방 및 친절 교육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 지도할 계획이며, 소비기한 경과제품 및 조리식품 보관·사용 여부, 개인 위생 관리 및 조리장 내부 환경 불량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공직자 청렴교육 및 복무교육
고흥군, 전 직원 대상

고흥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2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2024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복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강사는 현재 전라남도 감사관이자, 감사원 16년 근무 경력의 김세국 감사관이 ‘청렴 관련 규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과 상황별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복무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공영민 군수는 “청렴과 친절이 고흥의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청렴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구례군이 구례군 드림스타트에서 지난 3일부터 5개월 과정으로 창의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생각쑥쑥 창의과학교실’로 성취감 향상

구례군은 구례군 드림스타트에서 지난 3일부터 5개월(주 1회, 20회) 과정으로 창의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과학 기초 학습 능력 및 탐구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주제의 과학 실험 활동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생명과학(여류 실험

및 관찰, 광합성), 지례의 원리, 공기의 성질, 자유낙하 원리 등을 기반으로 아동들이 직접 실험하거나 만들어보며 집중력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한 아동 중에서 과학 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 아동을 우선 선발하였고, 현재 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물질들

이루는 원자나 분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려는 성질을 이용해 향수를 만들었다”며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든 향수를 가족들에게 뿌려줄 수 있어 무척 기뻐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에 서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아동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요트·육상·유도·롤러)이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5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번 공모의 평가지표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계획 △경기력 향상 계획 △인권친화 문화 조성 노력 △사회공헌 노력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수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이 4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확보된 예산은 종목 및 팀에 소속된 선수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체육 장비 구입, 전지훈련비, 우수지도자 초청 훈련지도수당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 님프만, 여름 침구 지원
탈북민 및 보훈가정에 100채

장흥군은 지난 12일 님프만(대표 김종근)에서 무더운 여름을 맞아 탈북민 및 보훈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여름 침구 100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흥 님프만 김종근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김종근 대표, 2019년에는 배우자 박운희 공동 대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로 선정된 바 있다.

김종근 대표는 지난 호국보훈의 달과 올해 첫 탈북민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불을 기탁했다”며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에서 유치활동

여수항 인프라·관광자원 소개

여수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에 참가, 여수항을 홍보하고 국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아시아권 크루즈 산업 관계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여수시는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여

수, 부산, 인천, 제주, 속초) 자격으로 참가하여 여수항의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크루즈 목적지로서의 전략과 방향성을 알렸다.

행사 이튿날에는 ‘로열캐리비언그룹’, ‘홀란드아메리카’, ‘MOL크루즈’ 등 글로벌 주요 선사 7곳과의 ‘B2B 네트워킹 이벤트’가 열렸다. 여수시는 크루즈 선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국내 다른 기항지와 차별화된 여수항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에 특히 집중했다.

시 관계자는 “크루즈 산업은 국제적으

로 도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한국 대표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크루즈선이 여수항을 찾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여수항에는 총 2척의 국제크루즈가 입항하였고, 오는 10월 프랑스 포넌트사 ‘르 솔레알호(Le Soleal)’와 11월 일본 유센사 아스카 2호(ASUKA II)의 입항이 예정되어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